

철원 젓소 '우결핵' 초비상

-김화읍 일대 90여마리 살처분후 인근 야산 매립-

철원지역에서 사육되는 젓소 90여마리가 법정 1종 가축전염병인 우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철원군 및 축산농가들에 따르면 도가축위생시험소와 철원군은 10일 우결핵에 감염된 젓소 90여마리를 모두 살처분한후 김화읍 도창리 인근 야산에 매립했다.

이날 도살된 젓소들은 도가축위생시험소가 최근 가축질병예방을 위해 김화읍 일대에 대한 정기순회검진중 우결핵 양성반응을 보였다.

철원군은 도가축위생시험소의 낙농가들에 대한 정기순회검진기간이 10여일 남아 있어 감염개체수가 추가로 확인될 우려도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피해농가들이 우결핵에 감염된 젓소가 비둘기와 함께 먹이를 먹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때 조류가 감염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발병원인은 물론 치료대책마저 없어 더욱 난감한 형편” 이라고 했다.

우결핵은 사람에게도 감염돼 결핵을 일으키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정부가 1종 가축전염병으로 정하고 젓소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검진 및 양성축 살처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피해 농가들은 이와 관련 최근 원유가(原乳價) 하락으로 낙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살처분된 젓소의 보상가가 실거래가격의 85% 수준인 농협조사 산지가격기준으로 책정되는 등 현실가에 턱없이 못미친다는 점을 들어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바라고 있다.

우결핵은 호흡기를 통한 결핵균의 흡입이 가장 많지만 감염된 소의 분비물 또는 배설물로 오염된 급수장소를 공동사용시 지속 전염되며 송아지의 경우 태반감염도 가능하다.<李正國기자:jklee@kwnews.co.kr>

-출처:강원일보-